보 도 자 료		양주시의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작성일자: 2022 년 4 월 12 일		
제목	양주시의회, 제340회 임시회 개회	
소제목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 점검요원 장애인 반드시 포함… 조례 제정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2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한 안건 가운데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다.

조례안에는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요원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순덕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구성할 때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옥정 신도시 인근 고암동 지원 1, 2부지의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민의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시민들이 물류센터 건립을 가장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라며,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물류창고의 화재로 112명의 인명 피해와 1,366억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진]

1. 안순덕 의원이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 임재근 의원이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